



전국언론노동조합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KBS본부

파업 특보

3호 (총17호)

발행인: 엄경철

발행일: 2010년 7월 8일(목)

이메일: kbsunion@gmail.com

트위터: @kbsunion

블로그: www.kbsunion.net

파업

8일,

“당신들의 뒤에 국민이 있습니다”

‘KBS개념탐재의 밤’ 2천 명 성황

어제 (7일) 본관 앞에서 열린 ‘KBS개념탐재의 밤’에 시민들이 2천여 명이 몰렸다. 본관 앞 인도가 시민들로 흘러 넘쳤다. MBC파업 때보다도 높은 참여 열기다. 그동안 KBS에 대한 실망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그 실망이 새노조의 파업 이후 기대로 바뀌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기자협회, 피디연합회 등
20여 개 단체 지지성명 이어져
노동.시민.사회 단체 총 망라

각계의 파업지지 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기자협회, 피디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참여연대, 여성민우회, 전교조, 고려대총학생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도시철도공사노조, 민언련, 미디어행동 등의 지지 성명과 논평이 이어졌다. 언론 유관 단체와 진보, 중도 성향의 노동.시민.사회 단체를 모두 망라하고 있는 셈이다. 7월 5일에는 경향신문에 파업지지 광고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kbsunion 트위터 팔로워 4배 증가
시민들지지 방문도 이어져

인터넷 파업 전에 1000여 명에 불과했던 새노조의 트위터 팔로워는 7월7일을 기준으로 3500명을 훌쩍 넘어섰다. 하루에 3~400명 씩 꾸준히 늘고 있다. 새노조 블로그와 새노조 파업 관련 기사에도 파업지지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시민들의 파업지지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문화제 때는 인터넷 모임인 진실시(진실을알리는시민모임)은 열음물을 가지고 지지방문을 했다. 역시 인터넷 모임인 강남카페, 인소주에서도 떡을 들고 시민 문화제를 찾았다. 시민들이 갑자기 노조 임시사무실을 방문해 간식 거리를 놓고 가는 일도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언론노조 각 지.본부 파업 기금 쾌척
시민들 기금 모금도 시작

MBC본부는 파업 기금으로 2000만 원을 보내왔다. SBS도 무려 1000만 원을 보냈다. YTN과 OBS, 아리랑TV, 동아일보 신문인쇄지부, 위성방송지부 등도 힘을 보탤다. 한국기자협회와 KBS계약직지부, KBS자원관리지부도 빠지지 않았다. 대국민 선전물을 보고 익명으로 기금을 보내오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어깨가 무겁다.
하지만 우리의 파업은 결코
외로운 싸움이 아니다.



기자들이 만든 파업 뉴스는 9시 뉴스를 훨씬 능가하는 완성도를 보였다.



라디오PD들이 결성한 <파업 '장기화'와 '몰골들'의 화려한 무대



<박대기와 발바닥들>을 이은 <개념시대>의 개념있는 공연



파업뉴스 중계차 코너 갑자기 등장해 공연을 망친 특보시장



● 파업 후원 계좌 : 하나은행 145-910119-22307 (엄경철)



당신이 KBS의 주인입니다



새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각계 단체에서 플래카드를 보내주셨습니다. 20개가 넘습니다. 붙이면 금방 떼버릴 것이 걱정돼서 붙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라도 한 장 찍으려고 했는데 청경들이 이것도 그냥 두지 않는군요. 연대와 지지를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진들 귀 좀 **확** 파주세요

'KBS를 살리겠습니다.'
아픔의 의미를 아는 여러분의 그 말을 지지하고 또 믿습니다. 월급이 날아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강행하는 이번 발걸음도, 응원합니다. KBS를 살리겠다는 그 말 꼭 이뤄주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일이 왜 이리 답답하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귀 닫은 경영진'의 귀 좀 확 - 파주십시오. 단 1분짜리라도,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방송을 만들 수 있는 길,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2010년 또 다시 뜨거운 여름, 공영방송을 지키고 싶은 작가들의 뜻을 모아 전합니다.



▲ KBS작가들이 보낸 귀이개

파업 승리! 대의원들이 앞장설 것이다!

7월 5일 1차 본사 대의원 대회가 열렸다. 48명의 대의원 가운데 41명 참석해 뜨거운 파업 열기를 증명했다. 대의원들은 파업 승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솔선수범할 것을 약속했다.

결의문

- 우리는 사측이 가하는 온갖 회유와 협박을 단호히 거부한다.
- 우리는 이번 파업을 평화적이고 질서 있게 이끌기 위해 헌신한다.
- 파업에 참가한 동료들이 받는 피해는 우리가 나서 막아낸다.
- 우리는 이번 파업을 누구보다도 앞장서 반드시 승리로 이끈다.

전국은 지금 파업 열기로 후끈 ~



부산지부_ 1인시위와 대국민 선전전으로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대구지부_ 가장 더운 대구, 파업열기도 가장 뜨겁습니다.



전북지부_ 출근투쟁, 로비투쟁, 전단지투쟁... 전북지부의 하루는 짧습니다.



충북지부_ 앵커들도 참여한 충북지부...서울보다 훨~씬 낫습니다.

"불법 파업" 스크롤 정정보도 신청

7월6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불법 파업"이라는 불법적인 용어를 사용한 사측에 대해 언론 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신청했다. 사측은 7월4일 <해피선데이>에서 "KBS본부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기 방송된 내용의 재편집 분을 방송한다"고 스크롤을 흘려보냈다. 하지만 KBS본부의 파업은 임단협 결렬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쟁의행위이다. KBS 사측이 KBS본부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은 명백한 오보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우리의 싸움은 외롭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본령으로 하는 언론이 권력 찬양과 옹호에 급급한데 대한 자괴감과 열패감이 컸던 KBS 구성원들이 파업의 행동을 선택한 것은 필연에 가까운 일이다.

● 한국기자협회

참여연대는 공정한 방송과 국민의 신뢰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파업을 벌이고 있는 언론노조 KBS본부의 행동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연대의 뜻을 밝힌다.

● 참여연대

진정한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는 KBS의 모습을 우리 대학생들과 국민은 기다리고 있다.

● 민족고대 제 43대 총학생회

김인규 사장은 새노조를 인정하고 공영방송을 위한 KBS본부의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KBS 새 노조의 파업이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하며,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에 맞선 이번 파업이 반드시 승리로 귀결되기를 기원하겠다.

● 민주노동당

우리는 공정성 및 신뢰도 1위를 자랑했던 KBS의

위상 추락이 중립성을 잃은 KBS 경영진에 있다고 판단하며 새 노조를 탄압의 대상이 아닌 공영방송 수호를 위한 건강한 동반자로 인식하길 주문한다.

● 방송기자연합회

KBS 새 노조는 공영방송에 대한 신념과 헌신, 그리고 열정이 다시 흐를 수 있는 물꼬를 트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다.

● 사회당

KBS를 다시 살리겠다는 뜨거운 투쟁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이번 파업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 여성민우회

국민들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파업이 왜 필요한지, 현재 KBS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진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

● 전교조

KBS를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리려는 KBS노동자들의 파업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내기를 기원한다.

● 진보신당

'아! kbs 이제 희망이 보이는구나' 진짜 믿어도 되며 이제라도 KBS본부 공영방송 쟁취투쟁에 작은 몸짓이라도 보태고자 다짐하며 적극적인 무한지지를 보냅니다.

● '행동하는 대한문시민' 자유인